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창군에 코로나 회복 지원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고창군에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24일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고창군청(군수 심덕섭), 고창군가족센터(팀장 인혜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창후원회(회장 김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 리커버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필요한 아동 가정을 선정하였으며 아동가정의 일상 회복을 위한 주머니, 생계비, 의료비, 학습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후원금 49,780,000원을 전달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창후원회(회장 김상기)에서도 500만원을 후원해 아동 가정의 회복지원에 힘을 보탰다. 구미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고 여러 가정에서 꿈을 포기하고 좌절했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이 전과 같이 꿈을 갖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많은 가정들이 일거리를 잃고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많았는데 도움을 주는 새단 관계자와 고창후원회 후원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지역의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혜자 고창군가족센터 팀장은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았는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여러가정을 살펴보신다. 단비를 내려준거 같다. 앞으로도 고창의 취약한 가정에 많은 도움을 달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다 같이 행복 동네 만들기 작업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22일 2022년 지역맞춤형 인성캠페인 공모사업 '다 같이 행복~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봉사자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신풍동 동도마을 외벽 페인트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같이 행복~ 동네 만들기' 사업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신풍동 동도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직접 찾고 해결하며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 이날 실시된 페인트 작업은 해당 사업의 마지막 활동으로, 신풍동 동도마을 주민과 더불어 칠봉화(페인트 칠하는 봉사회 회장 고상훈), 한바음 가족봉사단(회장 최지영), 행복드림 가족봉사단(회장 김성국), 청소년봉사단(회장 김여진), 대학생 봉사자 등이 함께 힘을 보태며 마을 취약계층 세대의 노후화 된 외벽을 페인트칠로 정돈하며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 남궁행원 센터장 "지난 2년간 행복동 동도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경찰,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김남영)는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1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경찰관 및 내빈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식전 행사로 청사 앞마당에서 풍물과 공연과 1층 현관로에서 '경찰현장,계첩사예 이어 동계폐출소장으로 근무중인 김태홍경감의 색소폰연주와 호남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한 김인 소프라노 고은영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본행사에서는 제 77주년 경찰의날 기념 홍보영상 시청에 이어 업무유공 경찰관과 경찰발전기에 기여한 군민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이루어져 영예와 축하가 이어지는 기쁨의 한바탕이 됐다. 김남영 서장은 "항상 우리 경찰에 힘이 돼 주는 협력단체장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경찰관 및 경찰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군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감 받는 경찰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희 기자

만학도 김선애씨, 기술사 2관왕 '쾌거'

전주비전대, 건축과(야간) 입학해 4년간 학사학위·자격증 4개 획득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40대 중반에 전주비전대학교 건축과(야간)에 입학해 4년간의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 학사후위과정의 학업을 수행하면서 학위와 전공자격증 4개를 취득한 만학도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올해 시행된 기술사 자격시험에 각각 다른 2개의 기술사에 최종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김선애(여, 52)씨는 지난 21일 건설안전기술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5월 20일 건축사공기기술사, 8월에는 토목사공기기술사 종목에도 1차 합격한 바 있다. 김씨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험 준비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전문 교과목에 관한 자료조사와 심화학습을 하는 등 열정을 보여며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술사시험에서 만학도 직장여성으로써의 한계를 넘어서는 2관왕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선애씨는 "항상 의연해지려 했으나 시험장에 들어설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됐다"며 "늦은 나이에 시작하기로 결심한 공부를 통해, 유능한 건설기술인으로 도약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학업에 매진하며 시험에 임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송상훈 교수는 "여성으로서 가정과 직장,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삼중고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기술사 2관왕으로 탄생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많은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통한 학습의 흥미와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0~21년 전국 전문대학 취업률 1위라는 뛰어난 성과로 '취업명품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주현대옥,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에 500만원 후원

전주현대옥(대표 오상현)이 제4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에 교육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에서 주최하고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김병근)가 주관하고 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오상현 대표, 현성국 본부장, 두재균 위원장, 이강선 공동집행위원장, 서두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현 대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직원과 교육기관 및 단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북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재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한 남다른 관심으로 4년 연속 후원을 해 주 감사드립니다"며 "후원금은 수상자들 비롯한 교직원들과 교육기관 및 단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것이기에 이 상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는 두재균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시민공동체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비롯한 교직원들과 교육기관 및 단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것이기에 이 상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는 두재균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시민공동체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가족센터, 제17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 개최

고창군 다문화가족과 군민의 화합의 장인 '제17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가 지난 22일 모양성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및 고창군의회 군의회 윤준병 국회의원,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다문화가족과 군민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6개국 세계문화 체험부스, 한국어 골든벨, 다양한 문화 존중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네발 외국인 근로자 공연, 베트남 전통춤, 일본밴드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의미 있는 콘텐츠 내용으로 고창군민과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갔다. 이날 유공자 표창에는 다년간 다문화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김주현(고창읍), 박대호(홍덕면), 서정선(상하면)씨가 고창군수 표창을, 태국출신 결혼이민자 김은혜(고창읍)씨가 고창군의회 의장 표창을, 고창군가족센터 통번역



지원사 최향자(고창읍)씨가 법인대표이사 표창의 영예를 얻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도전! 한국어 골든벨'을 열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35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영생교회, 전주대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전주영생교회가 지난 22일 전주대학교에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전주영생교회의 담임목사였던故 강홍모 목사는 전 재산을 기부해 구 영생학원(전주대, 전주비전대, 전주영생교)을 설립 운영하며,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썼다. 이번 장학금은故 강홍모 목사의 뜻을 이어받은 전주대학교 호남의 기복 명문 사학이 지속되길 응원하는 전주 영생교회 김동연 담임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제2회 전주영생교회와 함께하는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금으로 △뚜렷한 꿈과 목표를 위해 성실히 매진하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 △도전정신을 가지고 긍정적 마인드로 역경을 이겨내는 학생 △지역사회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 등 여섯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진배 총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맡겨 준 영생교회의 김동연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귀한 정성에 감사드리며, 전주대학교가 예수님을 닮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남원시, 결혼이민자 문화탐방 실시

남원시는 24일, 결혼이민자 하트마크(한국전정엄마) 맺기(총 88쌍)를 통해 맺어진 멘토(한국전정엄마)와 멘티(결혼이민자) 30여명과 전통음식만들기 및 문화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에 남원시 평생학습관 조리실에서 오탁밥을 만들고 관내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산내면 와운마을까지 뱃사공탐방로(신선길)를 걸으면서 환경정화활동 및 실상사를 탐방했다. 캠프보다야 출신 결혼이민자는 "전통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국에 계신 친정엄마와 함께 요리했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행복하고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한편 치매와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역 내 전통음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해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였으면 좋겠다"며,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김제 금산면, 벼 수확 영농현장서 농민들과 소통

김제시 금산면(면장 서효연)은 본격적인 수확 작업이 한창인 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 한해 값진 결실을 거둔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금산면 구월리에 위치한 벼 수확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수확 현황을 살펴보는 등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가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서효연 금산면장은 추수철 농기계 기밀 사고나 야간에 운행에 따른 농기계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 할 것을 세심하게 당부하는 등 금산면 농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겼다. 벼 수확 농가는 "농자재값 상승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실정을 이야기하며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추수 현장을 두루 방문 해 주민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금산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효연 금산면장은 "추수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에 감사드리고 올해 모든 농민이 대풍년을 이루길 기원한다"라며 "향후 벼 수확이 마무리 되는 11월 초까지 영농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사항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온누리신협, 산동면에 난방용품 지원

남원시 산동면(면장 김경숙)은 온누리신협(이사장 박근규)에서 지난 21일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면 행정복지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전기장판, 이불 등 난방용품 6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10월 14일부터 한달간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온세상 나눔 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7회째를 맞는 캠페인을 통해 전국 688개 신협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을 비롯하여 전기요, 이불 등 난방용품과 생필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를 나누어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일 예정이다. 신협 박근규 이사장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에 밝은 햇살을 비추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숙 산동면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어주는 온누리신협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